

청렴도 '꼴찌' 목포시 '우수기관' 변신까지

뇌물 받으면 파면 부패 신고엔 포상 직원끼리 청렴평가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지난 2004년부터 2년 연속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고 절치부심해 온 목포시가 3년 만에 명예를 되찾았다. 19일 국가청렴위가 발표한 청렴도 측정 결과 지난해 6.96점보다 무려 2.16점이 오른 9.12점을 획득, 청렴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목포시는 청렴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올해를 '청렴의 해'로 선포,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반부패추진기화단을 운영하는 등 뼈를 깎는 노력을 해왔다. 시는 우선 연초에 전 직원으로부터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행위에 연루되었을 경우 사직을 포함한 모든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내용의 청렴사직서약서를 받았다.

책상 위에는 '청렴서약서'를 붙여놓고 매일 청렴의지를 다지도 록 했다. 또 민원인들에게는 전화와 편지 등을 이용, 3차례에 걸쳐 '불편·부담한 일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개선책을 물었다.

시는 이와 함께 청렴도를 높이

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의식변화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청렴도 향상 테마프로그램 15개를 마련했다. 매일 1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직원들의 가슴에 '봉사와 청렴'이라는 글씨가 쓰인 공무원증을 달도록 했다.

또 청렴 다면평가제를 실시했으며 계약·공사·주택인허가·환경·보건·식물위생 분야의 업무를 처리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화이트(White) 편지쓰기' 운동을 시작했다.

"자존심을 되찾으려는" 목포시 공무원들의 노력은 전국 198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청렴도 19위라는 좋은 성적으로 되돌아왔다.

시민 임모씨(여·31)는 "청렴도 꼴찌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올해 청렴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니 다행"이라며 "요새 민원 처리를 해보면 전화응대도 상냥하고, 공무원들도 친절해지는 등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홍희기자 redplane@

서남권발전계획 SOC 집중 추진

기획예산처, 내년 관련 예산 속속 증액

노무현 대통령의 추진 약속과 국무총리산하 추진단 구성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서남권 종합개발계획의 사업별 추진 로드맵이 제시됐다.

기획예산처는 서남권 개발을 위해 도로, 공항 등 SOC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핵심 신규 사업의 국고 지원은 배제 또는 보류키로 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관련기사 3면>

19일 본지가 입수한 기획예산처의 내부보고서인 '서남권 발전 구상 관련 주요 사업 검토'에 따르면 정부는 서남권종합개발계획을 뒷받침할 기공을 위해 국회 예산 심의에서 예산 증액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의 실질적인 토대를 이룰 일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대상 과제 및 국고지원 곤란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

어 당초 구상에 차질을 불러올 우려를 안고 있다.

우선 기획예산처는 기존의 SOC 조 기안공을 위해 무안국제공항, 목포~보성간 철도 건설, 신안 압해~운남간 국도 77호선 사업, 대불산업단지 자유무역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새천년 대교(신안 압해~압태간) 등 신규 사업은 설계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반면 국토균형발전위원회가 서남

권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제기한 일부 신규사업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이의 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기획예산처는 국토균형발전위원회가 제기한 주요 사업 가운데 '세라믹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남악 신기안공을 위해 무안국제공항, 목포~보성간 철도 건설, 신안 압해~운남간 국도 77호선 사업, 대불산업단지 자유무역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새천년 대교(신안 압해~압태간) 등 신규 사업은 설계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반면 국토균형발전위원회가 서남

권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제기한 일부 신규사업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이의 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기획예산처는 국토균형발전위원회가 제기한 주요 사업 가운데 '세라믹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남악 신기안공을 위해 무안국제공항, 목포~보성간 철도 건설, 신안 압해~운남간 국도 77호선 사업, 대불산업단지 자유무역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새천년 대교(신안 압해~압태간) 등 신규 사업은 설계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반면 국토균형발전위원회가 서남



세계 최대 감압증류탑 19일 여수 GS칼텍스 제2중질유분해공정 시설에 세워지고 있는 높이 79.5m의 세계 최대 규모 감압증류탑. 대형 크레인이 감압증류탑을 콘크리트 기초 구조물(높이 24.7m)안에 넣고 있다. /여수=위직량기자 jwji@kwangju.co.kr

北-美 전격 양자회담

美대사관서 BDA 논의

북핵 현안은 물론 BDA(방코델타 아시아)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19일 본격화됐다.

북미 양측은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부터 베이징(北京) 주중 미국대사관에서 오후 7시 조선통일부 총재와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는 'BDA 실무회의'를 가졌다. <관련기사 6면>

북미 양국이 BDA 문제를 두고 양자 회담을 갖기 위해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과 글레이저 부차관보등이 나섰던 올 3월 뉴욕회담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미측은 뉴욕회담의 연장선상에서 BDA에 대한 재무부의 조사결과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측은 마카오 당국이 취한 BDA내 북한 자금 동결 조치를 풀려면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설명하고 돈세탁, 위폐제조 등의 제발을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북측은 자신들이 위폐 제조를 한 적이 없으며 다만 위폐 유

통의 피해자라는 이전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 내 북미 양자회담도 다오 위타이(釣魚臺)에서 시작했다. 양측

은 이른바 핵폐기를 위한 초기단계 이행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호혜조치를 놓고 집중적인 절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징=연합뉴스

진도 전국 1위...전남도 3위

목포시를 비롯, 광주 광산구와 진도군 등이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9일 국가청렴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국의 민원인 8만9천여명에게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도군은 9.29의 청렴도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 광산구는 9.17, 목포시는 9.12의 높은 점수를 받아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남도의 청렴도는 8.86으로 대전광역시(8.99)에 이어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주시는 8.

■청렴도 조사 결과 (10점 만점)

자치단체	결과	순위
광주시	8.68	16개 광역시도 중 9위
전남도	8.86	-
광주교육청	8.22	교육청 중 13위
전남교육청	9.04	2위
광주광산구	9.17	광주시 5개 자치구 중 1위
광주북구	8.52	5위
진도군	9.29	조시대상 21개 전남도 시·군 중 1위
영암군	8.49	21위

68로 9위를 차지했다.

전남도교육청은 9.04의 높은 점수로 16개 광역자치교육청 중 2위를 차지한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8.22를 받아 전체 교육청 중 13위를 기록했다. /임동욱기자 tuim@

후원대학 장학 56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m.ac.kr
▶ 입학문의 (062)970-0114 ▶ T. (062)970-0001

세계로 뚫어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ac.kr
▶ 입학문의 (062)228-3221 ▶ T. (062)228-3000

알림
제 52회 전국대인 호남예술제
음악부 지정곡 발표 15편
2007년 4월23일~6월30일 시상 범위 확대

전국 최고의 종합예술제인 호남예술제가 2007년 4월23일부터 6월 30일까지 광주학생교류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5회 대회 때 예술부문을 신설하고 미술과 작문의 경우 예선제도를 도입해 우수 장려를 위해 마련한 호남예술제는 2007년 대회에서 시상 부문을 더욱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예술제에도 자리잡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초 선정했던 음악부 지정곡을 미리 발표, 참가자들이 좀 더 세심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2회 호남예술제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가자격: 국내 거주 전국 초·중·고등학생
▶ 경연기간: 2007년 4월23일(월)~6월30일(토)
▶ 종 목: 음악·무용·극악·미술·작문·논술
▶ 신청기간: 4월3일(화)~4월12일(목)까지(인터넷,후편,팩스접수)
▶ 자세한 일정은 2007년 3월 초에 발표
http://www.kwangju.co.kr 참조, 문의: (062)228-0511

▶ 시 상: 우수학교 시상
·단체: 대상(대우)에 상시(시상금 5만원)
·개인: 기관장상, 최고상(상학금 5만원)
·우수지도교사에 지도교사상 수여

주최: 광주일보사
후원: 문화관광부·광주광역시·전라남도·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

아름다운 기업-금호아시아나

확장은 꿈꾸는 만큼 자랍니다

약속은 지키는 만큼 아름답습니다

친구와, 연인과, 때로는 나 자신과 하게 되는 수많은 약속들...
그도든게 실천에 옮겨진다면 미래는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요?
금호아시아나는 아름다운 약속이 아니라 아름다운 실천을 하겠습니다.
미래를 아름답게 하는 아름다운 기업의 길을 걸어하겠습니다.

아름다운기업 이 되기 위한 7대 실천과제
① 직원만족하는 경영 ② 소비자 신뢰경영 ③ 정부·민간 파트너십 강화 ④ 환경보호 ⑤ 윤리경영 실현 ⑥ 아름다운 CSR 실현 ⑦ 직원·인재양성